

북부신문

강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개최

예결특위 구본승·민생특위 박문수 위원장 선임

강북구의회(회장 유근성)는 지난 8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6일까지 12일간을 일정으로 하는 제144회 임시회 회기를 시작 했다.

유근성 강북구의회 회장은 이번 회기에 있을 민생특위 위원 구성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비율율과 불합리성의 문제는 없는지 의원들의 관심과 열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강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구본승(사 진 왼쪽) 의원, 김도연 의원, 김동식 의원, 이백

균 의원, 이종순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예결특위와 김도연 의원, 김동식 의원, 박문수 의원, 이백균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민생특위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본회의 직후 열린 강북구 민생특위 관련 특별위원회에서는 박문수(사진 오른쪽)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도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박문수 위원장은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집행부의 불건 부당한 민원처리가 있는지 살펴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 위원장으로

서의 소임을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본승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도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

임했다.

구본승 위원장은 "한정된 자원속에서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구의회는 27일부터 각 위원회 별 안건 및 추경 예산안 심의와 현안 활동을 병행하면서 서임시회 일정을 아슬아슬 계획이다.



북부신문

朴文洙 민생특위위원장, 부당한 민원처리 조사

江北區議會 144회 임시회, 예결특위위원장 구본승 의원 선출

江北區議會(議長 劉君厚)는 30일 오전 10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6일까지 12일간을 일정으로 회기를 시작하였다.

전체 의원 14명 중 13명과 박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본회의에서 하철승 행정과 리국경의 2010년도 제2회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결정 예산안에 대한 재안심결이 있었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강북구 민생특위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구본승·김도연·김동식·이백균·이종순 의원, 민생특위관련특위 위원으로는 김도연·김동식·박문수·이백균 의원을 선출했다. 본회의가 사회한 추 각 특위원별로 모여 예결특위 위원장에 구본승 의원, 부위원장에 김도연 의원, 민생특위위원장에 박문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도연 의원을 선출했다.

구본승 예결특위위원장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문수 민생특위위원장은 "집행부의 불건 부당한 민원처리가 있는지 살펴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강북구는 총 148억9천900만원의 추경예산안을 상정했다. 하철승 국경의 재안심결 후 박경수 구청장을 상대로 박문

수 의원의 질의와 박성열·구본승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져 본회의가 한껏 달아올랐다.

박문수 의원은 지 역내 3개의 지하철역세권 중 미야에 일 대가 가장 낙후됐다 며 내년 3월 성신여 대 운정역의 개 교 시기에 맞춰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 는 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장 대신 하철승 국경이 답변에 나서 '구청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검토가 필요

한데 회기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박성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회장님에게 북한산국립공원과 리공원에서 캐비닛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로 은평구가 최적지라고 발표했는데, 지금이라도 강북구가 연구용역을 맡겨 공단과 싸워야 한다'며 '강 건널 불구점만 하는 것은 구청장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또 현에 국회의원도 행사장을 외출 출신 장담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며 지 역의



▲ 박성열 강북구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박경수 구청장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모든 산출작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충고해 내세웠다.

구본승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회장님로 대상자를 6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한 곳은 서울시 25개구 중 강북구만 유일했다'며 '70일 초은이 을 145회 정회에서는 6세 이상 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예산을 편성할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철승 국경은 답변을 통해 '전반기에 일자리 사업을 비중을 높여 많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후반기

에 6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했다'며 '지배한 사유는 세대단변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다. 劉君厚 강북구의회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가진 개회사에서 개회사를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 비율율과 불합리적인 사업은 없는지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

(하철승 기자 sungshu@hermal.net)

강북구의회 1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구분승 박문수 박성열 신상발언 나서

일자리에산 확대, 걷고싶은 거리 조성, 북한산케이블카 유치 촉구



구분승 구의원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만 60세 이하로
나이 제한한 강북구 지적

지난 26일 개최된 강북구의회 1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분승 구의원(민주노동당)은 일자리 예산 확대를 제안, 촉구하는 신상발언을 진행했다.

구분승 구의원은 "9월부터 시작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강북구청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만 6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두었다"고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그로인해 수백 여명의 주민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해 실망감을 표하며 대대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서 구분승 구의원은 동료 구의원들에게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 사업 심의단 예산을 61세 이상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에 종속편성해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강북구청 집행부에게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 회담할 것"을 질의하였고 "61세 이상 주민이 참여하도록 장려" 확대 추가예산안을 10월 초순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 대상자도 만 60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둔 곳은 유일하게 강북구뿐이라면서 활동하려는 주민들의 참여 되고 희망을 함께 만드는 강북구의회와 주민공동체 집행부가 도기를 바라면서 지역 일자리에산 확대를 위한 협의를 모을 것을 제안했다.

사건은 구분승 구의원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북구만 유일하게 60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박문수 구의원

미아역-성신여대간 걷고싶은 거리 조성 요구
성신여대운동캠퍼스 개교 앞두고
미아역근로 역세권 활성화의 찬스

강북구의회 1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개최된 26일 박문수 의원이 미아역주변 활성화와 방안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박문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신일고등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성신여대 운동캠퍼스의 정문에서 미아역 횡단보도까지 534미터(약선 거리 386 미터)라는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걷고 싶은 거리, 멋진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명동 다자언기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34억원이 투자된 수유역 주변, 상암지역 면적비를 26.7%에서 76.9%로 42층의 초호층 신축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하는 등 미아삼거리를 자족개발지역으로 육성하고 있고 419길 가토원정공사 등에 87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번 추경에 7억 7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미아역대의 발전을 위해 노인성질환 환자들의 요양원보다는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위한 용역을 맡주며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다. 박 의원은 또 성신여대 운동캠퍼스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어 시기적으로 급하며 이번 예산에 수송 및 교통편의나 코트 및 자와개발 분야에 용역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사건은 박문수 의원이 준비한 자료 등 지도를 가리키며 미아역에서 성신여대 운동캠퍼스간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성열 구의원

북한산케이블카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격
출신당 다르다고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머리를 맞대고 구민을 위해 논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지난 26일 강북구의회 1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성열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구청장과 집행부에 일침을 놓았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일부언론에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으로 은행나무 발표된 것에 대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말하고 강북구는 케이블카 설치해 유치해 발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구용역비를 조성해서 공간과 맞서 써줘 강북구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북구의회 의원이 모르는 행사가 있다고 지적하고 구민을 주인처럼 여기는 구청장이자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모르는 지역행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또 지역행사에서 선출직 최고인 구청장인 국회의원외에 오도 못지 않든지 한다며 "출신당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사건은 박성열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는 머리를 맞대고 구민을 위해 논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구청장은 유념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朴文洙 江北區議員, 초선 같은 열정 과시

내년 봄 성신여대 개교하는데 걸고 싶은 거리 만들어야

8년만에 강북구의회에 복귀한 박문수(민주당·강북2)와 의원이 임기 초반부터 초선의 열정으로 뛰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1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문수 강북구청장을 향해 자신의 지역구인 미아역 일대에 자신이 구상한 청사지를 들고 나와 예산자원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15년 전 박 구청장이 시의원에 출마하던 시절과 현재의 미아역 일대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묻고 '이제 미아동도 변화의 시대를 맞아 2011년 봄 개교할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정문에서 미아역 횡단보도까지 53km(직선거리 38km)를 걸고 싶은 거리, '걸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수유에 주변에는 명동 디자인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34억이 투입됐고, 미아삼거리역 주변은 미아언밸리혁신지구사업을 추진하여 연서 상업지역 면적비율이 26.7%에서 76.9%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아역 일대에 노인복지회관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과 데이케어 센터 등을 건립하는 것이 미아동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



▲ 朴文洙 議員이 지도까지 갖고 나와 성신여대 부근에 '걸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그 동안 반치한 미아동의 발전을 위해 '당장 '걸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며 용역비 편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의 박진형·신승호·김정중·김기욱 의원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했다. 물론 지역출신 시의원들은 같은 자리에 없었지만...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강북구 민생처리관련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민생특위의 목적은 강북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처리 지연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지연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파악하여 개선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소감을 쓰는 기지에 게 긴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인지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짧게 대답했다. 그는 유권선 의장과 함께 강북구의회에서 3인의 최다선 의원이다. <해설수기자 sungshu@hermail.net>

서울포스트

강북구의회 1박 2일 의원세미나 실시

박문수 최선 의원 '지방자치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방향'을 주제로 노하우 전달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한 의원세미나에서 박문수위원의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의원간의 단합, 그리고 의원 서로간의 경험 및 지식을 나누는 공유의 시간으로 활용되었다.

첫날인 23일에는 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지 전남대 행정대학원 원장인 오재일 교수는 '지방자치와 지역정책'을 주제로 지방 차질 및 의회 민주주의의 이해,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심의 기법, 효율적인 의원 입법활동 등을 내용으로 의정활동의 지식을 전달하였다.

다음날 박문수 의원은 제23대 구의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3선의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해 주었으며, 재선 의원인 최선 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방향'을 주제로 행정사무 감사 및 구정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도서를 추천하는 등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유권선 강북구의회 의장은 "짧은 일정이지만 의원들에게 다양한 지식의 전달과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였다.

강북구의회(의장 유권선)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의원들의 시선 합을 위하여 일련한

화관도에서 의원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제6대 강북구의회

개원으로 새로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의원들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지식의 습득, 초·재선